

〈발표2〉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혜석(예수대)

이대식(육군대령, 의정병과장)

I. 서 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은 강제적인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국방의 의무에는 매우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 존재목적이나 임무수행의 성격상 일반사회의 어느 조직보다도 인위적인 개인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계급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개인 특히 신세대 병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심리적, 행위적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 연령상으로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에서 24세에 있는 신세대가 대부분이어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대환경은 아직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있는 병사들의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정지희, 2007).

신세대 병사들에 있어서 적응이라는 문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삶을 다루는 영역에서 벗어나 군 조직 전체의 활력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신세대'라고 불리는 특징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유롭고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로 군구성원들로 형성하는 점을 볼 때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절한 배려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선하, 1997 ; 박상래, 2003 ; 서혜석, 2006a, 2008).

이러한 군생활의 적응을 위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로가 희망적이지 않을 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져서 군 적응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구승신, 2004), 군 생활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른 후임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이정임, 2007). 이것은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탐색에 도움이 되어, 제대 후 진로를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 여러 직업들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통해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신세대 병사들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취업알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서혜석, 2005), 또한 박영주·정원철(2006)의 연구는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병사의 군 적응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세대 병사들에게 진로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절실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 적응을 위한 신세대 병사의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수준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결정수준이 여러 측면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더욱 더 절실이 필요하다.

전공 및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수준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통해 목표설정(goal setting)의 동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Locke & Latham, 1990 ; Locke, et. al., 1981)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표는 개인으로 하여금 성취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노력을 하도록 해주며, 과제수행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조차도 과제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초과노력을 하도록 동기화한다고 한다. 따라서 신세대 병사의 높은 진로결정수준은 분명한 목표설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세대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에도 동기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진로결정은 군에서의 병영생활의 방향 및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 병영수행의 결과에 대한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이 군 생활적응에 동기적 효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개적 역할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매개 작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둘 다 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군 생활적응이나 진로결정, 또는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에 따라 군 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으며, 군 생활적응을 얼마나 예언하는가?

둘째,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 간에 매개 작용 효과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군대의 보안과 기밀누설금지의 규정으로 설문조사가 허락된 부대로 0000 부대에 있는 신세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수준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군 생활적응척도를 몇 가지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질문들과 함께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를 만들었다. 자료 수집은 00본부에 보안검토를 한 후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초안을 완성한 후 0000 부대의 군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병사 4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한 후 본조사의 수집기간은 2007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한 달여간이었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200부중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하고 총 198부만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Packge(Version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r', 중다회귀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검증 등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는 김아영(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신세대 병사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5문항)의 선호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예를 들어, 자신감의 문항으로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등 7개 문항이 있고, 그 점수의 범위는 1-42점이다. 자기조절 효능감의 문항으로는 '나는 일을 조직적으

로 처리하는 편이다' 등 12개 문항이 있으며, 점수범위는 1-72점이다. 또한 과제 난이도의 문항으로는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5개 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30점이다. 부정문항(총 9문항)은 역산됨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a=.89이다.

2) 진로결정수준 검사

진로결정수준 검사는 Osipow(199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검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벽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피검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다음의 16개 문항은 진로미결정 수준을 측정한다. 즉, 문항 1~2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지만,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1개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며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a=.92였다.

3) 군 생활 적응 척도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에서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군 생활적응은 신태수(198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태수는 군 생활적응 척도로 Stauffer(1949)이 만든 척도를 1963년 이윤희가 번역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구승신(2004)이 사용한 척도를 신세대 병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하위요인별로 심신의 상태 3문항, 임무수행 의지 4문항, 직책과 직무 만족 7문항,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측정된다. 신태수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a= .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a=.91이었다.

III. 연구결과

1.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1>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유의한 예측변수	수정된 R제곱	R제곱 변화량	F값	F유의도	Beta	t	유의확률
총 군생활 적응	과제난이도선호	.19	.14	24.32	.000	.28	4.09	.000***
	자기조절효능감		.06			.27	3.89	.000***
심신상태	자기조절효능감	.25	.23	34.41	.000	.38	5.61	.000***
	자신감		.04			.21	3.05	.003**
임무수행의지	과제난이도선호	.10	.11	22.96	.000	.32	4.79	.000***
직책& 직무만족	자기조절효능감	.14	.11	17.53	.000	.26	3.64	.000***
	과제난이도선호		.04			.22	3.13	.002**
군조직환경태도	과제난이도선호	.11	.08	12.65	.000	.21	2.97	.003**
	자기조절효능감		.04			.20	2.78	.006**

p<.01, *p<.001

<표 1>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신세대 병사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요인들이 군 생활에서의 여러 측면의 적응을 얼마나 예언하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총 군 생활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제난이도선호이었으며, 그 다음이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이었다. 또한 자기조절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 하위요인 중, 심신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한 종속변인이 모형에 더해짐으로써 늘어나는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이 총 군 생활 적응의 14%(R제곱 변화량 =.14)를 설명하고, 자기조절효능감은 6%(R제곱 변화량 =.06)의 설명력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이 심신상태의 23%(R제곱 변화량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난이도 선호 요인이 임무수행의 지의 11%(R제곱 변화량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 적응에 병사들의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표 2>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 적응 간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잠재적 매개변수	분석단계	Beta	유의확률	분석결과
총 자기효능감	1단계(진로결정→자기효능감총점)	.58	.000	· 1 & 2단계 조건 만족 · 3단계 조건만족 (3단계 β1<2단계 β) · 3단계 β2 유의 = =>완전매개
	2단계(진로결정→군생활적응)	.29	.000	
	3단계(진로결정/자기효능감총점→군생활적응)	.07(β1)	.414	
		.39(β2)	.000	
자신감	1단계(진로결정→자신감)	.49	.000	· 1 & 2단계 조건 만족 · 3단계 조건만족 (3단계 β1<2단계 β) · 3단계 β1 & β2 모두 유의 = =>불완전매개
	2단계(진로결정→군생활적응)	.26	.000	
	3단계(진로결정/자신감→군생활적응)	.20(β1)	.010	
		.18(β2)	.021	
자기조절 효능감	1단계(진로결정→자기조절효능감)	.46	.000	· 1 & 2단계 조건 만족 · 3단계 조건만족 (3단계 β1<2단계 β) · 3단계 β1 & β2 모두 유의 = =>불완전매개
	2단계(진로결정→군생활적응)	.29	.000	
	3단계(진로결정/자기조절효능감→군생활적응)	.16(β1)	.032	
		.29(β2)	.000	
과제난이도 선호	1단계(진로결정→과제난이도선호)	.39	.000	· 1 & 2단계 조건 만족 · 3단계 조건만족 (3단계 β1<2단계 β) · 3단계 β1 & β2 모두 유의 = =>불완전매개
	2단계(진로결정→군생활적응)	.29	.000	
	3단계(진로결정/과제난이도선호→군생활적응)	.17(β1)	.016	
		.30(β2)	.000	

*p<.05, **p<.01, ***p<.001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 적응 간을 매개하여 적응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검증 절차를 따랐다.

위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 적응 사이에 매

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의 총점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은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 적응 사이에 유의한 불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대 병사의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군 생활 적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신세대 병사들의 진로결정수준은 군 생활적응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높은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군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적응의 여러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적응 간에 매개 작용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은 군생활적응의 모든 측면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특히, 심신상태와 $r=.30(p<.01)$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생활상태 등이 군 생활에 얼마나 충실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승신(2004), 서혜석(2005, 2006a, 2006b), 송미림(2006)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은 결과에서와 같이 군 생활적응의 하위측면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과 심신상태가 $r=.48(p<.01)$ 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임무수행의지로 나타났다. 이것은 군인의 사명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역할, 자발성, 자신감, 임무수행, 소속집단에 대한 신세대의 특징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이 군 생활적응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선호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와 개인의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아미, 2000 ; 최영희, 2004 ; 이승현, 2005)와 유사하다. 청소년시기 발달과업으로서 진로에 대한 영향요인은 청소년후기인 신세대 병사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신세대 병사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군관계자들의 각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진로결정수준과 군 생활적응 간을 매개하여 적응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진로결정과 군 생활적응사이에 유의한 불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대 병사의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군 생활적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군 생활적응을 높이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신세대 병사들의 진로결정수준은 군 생활적응을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높은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군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의 임상적 함의로는 우선 신세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는 신세대 병사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접근을 담당할 전문적인 민간인 상담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러한 전반적인 신뢰적인 분위기를 위한 신세대 병사들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시간의 확보, 직업훈련 및 교육, 정보제공, 자격증 취득여건의 보장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세대 병사들에 대한 개입을 정책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신세대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사회복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회복지제도가 시급함을 시사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세대 병사에 대해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표집에 있어서 0000 부대의 유의표집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데는 예측되는 변인을 다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